

# 與 “징계위 먼저”...野 “추미아·윤석열 포괄 국조”

### 민주당 “정쟁 안데” 한발 유보...국민의힘·국민의당, 추 장관 정조준

추미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놓고 여야의 ‘국회 국정조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지만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폭넓게 질질박을 따져 보자며 역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남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사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면서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툰 다운’에 나선 배경에는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미아-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선불리 야당에 반격의 발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이 국조 필요성과 관련,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

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도부 인사는 “대표 메시지가 세계 나간 측면이 있지만,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반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가까이 수용하겠다”며 “뭉치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추 장관을 국조에서 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직무배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조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며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다. 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검찰 권한의 남용이 아닌 대표가 총격



법사위, 이틀째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받았다는 혐의의 원인”이라며 “법적 중단을 일으킨(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다음달 9일까지 공수처법 처리”

### 김태년 “野 발목잡기 용인 않겠다”...예산안 먼저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공개 회의에서도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잡기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된 회의였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처럼 행사하면서 지난번과 다름없이 회의의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방해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 “그건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추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극도까지 무너뜨렸다”며 “다이상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일자는 예산안 처리(12월 2일) 이후로 수일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는 3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원내 관계자는 “어차피 정기국회 중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2일 예산안과 비정정 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정정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소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 리얼미터 조사 43.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율이 긍정 평가율을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넘어섰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23일~25일)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43.4%(매우 좋음 23.0%,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52.6%(매우 잘못함 38.2%, 잘못하는 편 14.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4.0%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9.2%포인트로, 전주(11월 3주차 주중집계) 10.3%포인트보다는 간격이 소폭 좁혀졌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유권자 3만 3640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4명 응답을 완료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윤영덕 “10만명 이상 국민동의청원 폐기 않고 계속 심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5일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라는 이름으로 자동폐기된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접수한 청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법률안과 같이 자동폐기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7건 중 5건이 심사가 완료되



지 않은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이중 3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원은 국회·정부가 제출한 게 아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인만큼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는 일 없이 계속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노용래·민형배·박영순·송갑석·신정훈·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조오성·진성준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 주철현, 연근해어업구조개선·해양진흥공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26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등 2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



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해, 감축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 로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립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양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주택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경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윙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 2021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제,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장소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jnu.ac.kr)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공과대학 4호관 202호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20. 12. 3.(목)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